

## 하이패션에 나타난 남성셔츠 디자인 이미지 연구

김 현 아\* · 이 효 진\*\*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전공 박사과정\* ·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Design Image of Men's Shirts Expressed in High Fashion

Hyun-A Kim\* · Hyo-Jin Lee\*\*

Doctoral's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0. 7. 15, 심사(수정)일: 2010. 10. 15, 게재확정일: 2010. 11. 4)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xpressive aspect of men's shirts through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men's shirts with the trend of men's clothing well represented and considering the image based on high fashion. As a method of study, I have conducted the theoretical study through the literature data, and the content analysis through photographs from S/S collection in 2005 to F/W collection in 2010. Especially, in the recent men's shirts, the materials of glossy silk, wavering chiffon and jersey tend to appear and various images are represented with the tasteful decoration such as ruffle, pin tuck and embroidery together with pastel color. Thu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the masculine and romantic images are researched as the image emphasizing the beautiful and soft masculine beauty which doesn't lose the masculinity even though they are seasoned with the feminine elements. Soft masculine beauty is emphasized by using romantic image decoration of frills, beads and pin tuck or silk, jersey and openwork materials etc. Secondly, practical fusion images have been studied as the images emphasizing the freshness with practicality through grafting more than two items onto one shirt. Many designs have appeared representing new shapes by grafting more than two items onto one shirt or obscuring the border line between the items. Thirdly, the avant-garde chic images have been researched as the image emphasizing the chic image through representing unique and odd designs by excessively expressing the silhouette in general shapes of shirts. I come to find that the mainly the designs, emphasizing the uniqueness and the distinction with transformed shapes of sleeves, cuffs and the length of shirts in exaggerated manners, are appearing. Thus, I intend to provide a reference material which will be useful for the newly created design and researches of figurative characteristics in the future fashion.

Key words: men's shirts design(남성셔츠 디자인), masculin romantic image(머스쿨린 로맨틱 이미지), practical fusion image(프랙티컬 퓨전 이미지), avantgarde chic image(아방가르드 시크 이미지)

## I. 서론

최근 감각적인 시대에 부응하여 남성들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화장하는 남자나 갈수록 화려해지는 남성패션은 남성에게 내재되어 있는 여성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남성에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예전처럼 여자친구나 아내가 선택한 옷을 수동적으로 입는 대신 직접 선택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남성들은 풍부한 감성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능동적인 자기표현과 개성의 표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는 과거의 슈트와 같은 틀에 박힌 착장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면서 개인의 가치와 즐거움의 추구는 패션에 있어서 개성의 표현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복 시장에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중점을 두었던 남성들의 의식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로 전환되면서 '스타일링의 시대'라는 남성패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욱이 외국계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착장에 대한 방침을 비즈니스 캐주얼로 선호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은 남성복 시장에 큰 변화를 주었다. 이는 남성의 착장문화가 슈트에서 세퍼레이트(separate)<sup>1)</sup> 코드로 변화함에 따라 슈트 위주로 판매하던 브랜드들이 캐주얼 라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통업계에서는 남성들이 1~2개의 매장만 돌아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쇼핑패턴을 적용해 대표브랜드를 모아 편집매장의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20대와 30대는 물론 40대 남성들까지도 캐주얼셔츠와 팬츠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업에서 시행한 비즈니스 캐주얼 착장에 대한 방침은 단순히 착장법만 변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태도를 변화시켰으며 남성의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sup>2)</sup>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남성복에서 기본적인 셔츠는 가장 시각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써 특히 슈트를 입었을 때 넥타이로 멋을 냈다면 비즈니스 캐주얼에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셔츠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서양복식사를 고찰해보면 남성들은 셔츠에서 다양한 멋 부리기를 했으며 셔츠는

원래 피부의 바로 위에 입혀지는 것으로 몸의 윗부분을 둘러싸는 속옷으로써 인식되어왔지만 20세기가 되면서부터 겉옷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sup>3)</sup> 이에 21세기의 셔츠는 속옷이 아닌 겉옷의 개념으로 재킷이나 슈트와 함께 착용하는 필수 아이템 또는 단품으로 착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남성셔츠에서는 광택이 나는 실크, 하늘거리는 쉬폰, 저지 소재 등이 나타나며 파스텔 톤의 컬러와 함께 러플, 핀턱, 자수 등의 감각적인 장식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근 남성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메트로섹슈얼현상을 다룬 권지은<sup>4)</sup>, 조은주<sup>5)</sup>, 안보은<sup>6)</sup>의 연구, 현대남성패션의 변화를 분석한 김지연<sup>7)</sup>, 이현지<sup>8)</sup>, 김태희<sup>9)</sup>의 연구 등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복 아이템 중에서도 셔츠에 관한 연구는 장성은의 패턴연구<sup>10)</sup>와 이승현의 감성연구 및 김경희의 선호도 연구<sup>11)</sup>들이 행해졌다. 그러나 남성셔츠 디자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남성의 소비문화 변화와 함께 비즈니스 캐주얼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셔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이패션을 중심으로 남성복 트렌드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남성셔츠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고 이미지를 고찰함으로써 조형적 측면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럼으로써 미래패션의 새롭게 창출되는 디자인 및 조형성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함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하이패션에서 나타난 남성셔츠디자인이 21세기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유행을 선도하고 있으므로 2005년 S/S 컬렉션이후부터 2010년 F/W 컬렉션까지를 연구범위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컬렉션 사진자료를 통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자료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국내·외 서적, 패션 전문지 등의 간행물,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내용분석은 남성셔츠의 이미지 변화가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보이는 현상이므로 국내컬렉

선과 함께 살펴보았다. 하이패션에 나타난 남성셔츠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사진들은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을 다룬 주요 패션관련 인터넷 사이트 www.samsungdesign.net과 www.sfaa.co.kr, www.seoulfashionweek.org 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사진선정은 정확한 분석과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 5명이 세 차례의 검증을 거쳐 정하였다.

## II. 셔츠에 대한 일반적 고찰

### 1. 셔츠의 개념 변화

셔츠(Shirts)는 Shirt의 복수형으로 고대 영어로 스키르트(Scryte)라고 불렀는데 그 어원은 스칸디나비아어인 스키르타(Skyrta)라고 전해진다. 스키르트는 셔츠라는 의미였으나 더 오랜 옛날에는 '간단히 입을 것'을 내포한 의미로 상반신용이 셔츠이고 하반신용이 스커트였다. 스키르트는 대체로 1000년경부터 사용되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Schirte, Scherte의 철자를 거쳐 shirt가 된 것은 대략 1530년경이었다고 여겨진다. 셔츠에 커프스가 붙게 된 것도 대략 이 무렵이었다.<sup>12)</sup>

셔츠는 원래 상반신을 덮은 속옷이었다. 속옷이란 겉옷에 의해 완전히 혹은 거의 가려지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sup>13)</sup> 약 18세기까지 옷에 오물이나 땀이 묻는 것을 막기 위한 속옷으로 입어 왔으며 특히 팬티의 역할도 담당했기 때문에 뒷 판의 밑자락을 가랑이 밑에서부터 앞으로 돌려 앞단추로 고정시켜 입었다. 지금도 셔츠의 밑자락이 큰 라운드 형태로 된 것은 그 때문이다.<sup>14)</sup>

고대에는 속옷과 겉옷이 한 장으로 같은 성격을 가졌고 중세에는 속옷이 죄의식과 연관되어 노출되지 않아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속옷과 겉옷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과거에는 속옷으로 인식되던 셔츠가 19세기 후반부터 겉옷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가 되면서 완전히 겉옷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sup>15)</sup> 특히 19세기 말까지 화이트 셔츠는 우아함의 상징이었는데 셔츠를 규칙적으로 갈아입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자주 세탁할 수

있었던 부유한 사람만이 화이트 셔츠를 입을 수 있었다.

1950년대 이전 짧은 소매와 오픈 넥의 스포츠 웨어를 별개로 하고 일상용 데이셔츠(day shirt)는 항상 버튼 또는 링크스(links)로 여며지는 커프스가 달린 긴소매와 스타드에 의해 고정되어지는 넥밴드와 부착된 칼라로 설명되어진다.

한편 1960년대 이후 현대적 의미의 셔츠는 '소매가 있으며 코트나 재킷 혹은 다른 옷들의 안에 받쳐입는 옷옷류'로<sup>16)</sup>, 영국적 의미의 셔츠는 미국인들이 드레스셔츠와 테일러드 셔츠로 부르는 것이며 보통 긴소매, 스탠드본이 있는 칼라, 싱글 또는 더블의 커프스, 그리고 단추로 여며지는 수직으로 완전한 트임이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미국적 의미의 셔츠는 이보다 개념이 모호하여 여성들이 착용하는 상의류를 제외한 남성들이 착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의를 의미한다. 여기서 상의라 함은 현대의복에서 셔츠가 여가생활에서 포멀웨어에 이르기까지 컬러와 소재, 패턴과 스타일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대에 들어서 일반적인 셔츠는 코트스타일 셔츠(coat style shirt)로 앞 목에서부터 앞 밑단까지 열려있고 단추가 달려있는 코트의 형태이며 칼라와 커프스가 있고 밑단은 엉덩이에 이르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sup>17)</sup> 셔츠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리가 용이한 합성소재의 개발로 위생적 기능이 강화되었고 현재에 이르면서 여러 유행모드에 의해 그 형태와 스타일이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 2. 셔츠 디자인의 복식사적 고찰

본 장에서는 셔츠의 복식사적 고찰을 통하여 셔츠의 디자인 측면에서 변화되어 온 흐름을 살펴보았다.

남성복 셔츠는 상의 안에 입었던 옷으로 한정되었던 속옷으로서의 셔츠가 19세기가 되면서 점차 겉옷으로서 표현되게 하였고 20세기가 되면서 완전히 겉옷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성복셔츠가 변화되어 온 흐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20세기를 기준으로 20세기 이전, 20세기, 21세기로 시대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20세기 이전

셔츠는 속옷의 개념으로서 제일 안에 입는 단순한 복식으로, 린넨으로 지은 간단한 슈미즈를 그 기원으로 가정하고 있다. 간단한 린넨 슈미즈의 형태는 르네상스시대까지 유지되다가 1500년경부터 1550년경 동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셔츠의 고전적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변화된 형태는 헐렁한 소매와 손목 부분에 개더를 잡아 밴드를 묶거나 러플을 단 것을 특징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통한 속옷의 노출은 셔츠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함을 의미하였다.

16세기 후반의 셔츠는 더욱 사치스러워졌으며 목 부분의 셔링은 러프(Ruff)로 발전하였다. 이 러프는 100년 이상에 걸쳐 변화가 일어났고 1580년경에 이르러 스페인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크기와 형태로 발전하였다.<sup>18)</sup> <그림 1><sup>19)</sup>의 극단적으로 높아진 러프는 목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으며 스페인 복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17세기 전반은 르네상스 스타일과 네델란드의 시민복장이 교체된 시기로, 부드러운 셔츠의 칼라와 커프스는 뾰뾰한 러프를 대체하였고 처음으로 크라바트가 목 주변에 둘러졌다. 그러나 17세기 중엽 바르콕의 취향이 서서히 시작되면서 귀족들 사이에서는 무늬 없는 하얀 린넨이나 레이스로 만든 호화롭고

늘어지는 넓은 칼라가 다시금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계절에 상관없이 겉옷의 가슴부위를 여미지 않는 것이 유행하였고 셔츠는 노출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더욱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다. <그림 2><sup>20)</sup>는 두블렛의 슬릿이 셔츠를 드러내 보이게 함으로써 장식적 효과를 준 것을 보여준다.

18세기 말의 프랑스 혁명은 19세기의 서민취향을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남성의 셔츠 앞과 더불어 개인의 청결함이 새로운 신분표시의 상징이 되었고 셔츠에 무, 수직밴드, 수평밴드가 보강되었으며 셔츠 앞의 러플장식과 높은 스탠딩칼라는 넥 클로스로서 감추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sup>21)</sup>의 다비드의 세리지아 신사의 초상은 1790년대 복식을 그린 것인데 소매의 납작한 커프스의 넓이가 적당하며 크라바트의 보우는 셔츠 프릴 위에 오게 착용하였다.<sup>22)</sup>

셔츠의 현대적 형태는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성립되었는데 1871년 Brown, Davis & Co.에서 처음으로 가슴 아래로 버튼이 잘려 내려오는 현대적 형태의 셔츠가 만들어졌고 그때까지 셔츠는 위 아래로 입고 벗는 형태였다.<sup>23)</sup> 일반적으로 칼라는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였으며 앞이 등글거나 뾰족한 칼라는 하얀색이 대부분이었고 셔츠의 바디 역시 하얀색이거나 또는



<그림 1> Rodrigo de Villandrando <스페인의 펠리페 4세> 1615~20년  
www.samsungdesign.net



<그림 2> Daniel Mytens  
<Charles I>, 1631년  
www.samsungdesign.net



<그림 3> Jacques Louis David  
<세리지아 신사>  
1795년  
www.samsungdesign.net

줄무늬의 것도 있었다. 또한 매우 다양한 칼라의 형태가 존재하였으며 셔츠는 앞가슴부분, 칼라와 커프스로써 여전히 신분·계급 상징을 나타내었고 신분상징의 기능은 화이트 셔츠와 칼라에서 특히 잘 나타났다.

## 2) 20세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남성복에는 사회계층에 대한 구별이 약화되었고 대신 부의 표현이 중요하게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부를 나타낼 수 있는 걸로 드러나는 수트를 제외하고 속옷으로서 착용되었던 셔츠는 신분표시로서의 기능을 서서히 잃어갔다.<sup>24)</sup> 이 시기의 셔츠의 특징은 파란색과 하얀색, 또는 빨간색과 하얀색의 두꺼운 줄무늬가 유행하였다. <그림 4><sup>25)</sup>의 애로우(Arrow)는 19세기 말 상표를 등록했으나 매력적인 광고가 시작된 1913년부터 널리 알려지면서 성공을 거두었다. 플레인 또는 플리즈 셔츠에 통상적으로 린넨으로 된 탈부착식 칼라를 달았으며 칼라는 포크칼라나 윙칼라 같은 스탠딩칼라에서 턴다운 칼라로 변화하였다.

20세기 초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경제적 대변동과 사회관습의 약화로, 남자복식이 엄격한 격식으로 부터 자유로워져 편안한 스타일로 변하게 되었다. 특히 야외활동에 대한 관심과 의복에 대해 관대해진 태도는 남성복 디자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장용과 이브닝용으로써의 흰 셔츠는 그 외의 용도에서는 거의 착용되지 않았고 코트형의 데

이셔츠가 일반화 되었다.<sup>26)</sup> 또한 셔츠에서 커프스 링크를 사용하는 프렌치 커프스는 야회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라졌으며 대부분의 커프스는 단추로 여며지게 되었다.

20세기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외모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남성복과 남성용 화장품 판매가 급증하였다. 이는 공작혁명과 함께 남성복의 엘레강스가 부상하게 되었는데 박스형의 몸판, 롱포인트 칼라, 높은 칼라 밴드, 커다란 스트라이프, 다양한 프린트 무늬가 엘레강스 스타일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좀 더 실재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을 추구하면서 드레스 셔츠의 칼라 폭과 넥타이 폭이 다시 넓어졌고 직물의 패턴도 솔리드에서 벗어나 스트라이프가 많았으며 유색 또는 프린트 무늬의 드레스 셔츠도 유행하였다.<sup>27)</sup> 남성복에서 편안한 스타일의 선호경향은 점점 증가하여 비즈니스 수트에 오픈셔츠를 매치하여 입는 것도 유행하였다. <그림 5><sup>28)</sup>는 1970년대에 유행한 영화로, 토요일밤의 열기에서 오픈셔츠를 매치한 존트라볼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는 복고풍인 루즈 룩의 영향으로, 이탈리아 모드와 함께 소개된 보다 활동하기 편하고 넉넉한 정장은 드레스 셔츠에 밴드가 없는 남방용 셔츠 칼라나 스탠딩 칼라 등 크기가 작은 칼라와 매듭이 작은 넥타이를 적용하게 하였다. 또한 공작혁명과 함께 시작된 남성패션에 대한 주목으로 남성들의 스타일은 여성복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특히



<그림 4> Arrow의 Collars and Shirts 광고, 1913년  
20세기 패션, p. 39



<그림 5> 존트라볼타, 1970년대  
www.nate.com

계속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규칙에 얽매이지 않게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 3) 21세기

21세기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이라는 성적 구분의 경계선의 모호함과 함께 강하고 거친 이미지의 남성보다 부드럽고 섬세한 남성상이 선호되면서 남성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남성들은 능동적인 자기표현과 개성의 표출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다양한 디자인의 셔츠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칼라는 중첩되어 나타나거나 넥밴드에 탈부착형으로 되어 있어 땀다 붙었다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또한 칼라나 스탠드 부분이 극도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셔츠의 칼라에 다른 부위를 결합시킨 디자인도 나타났다. <그림 6><sup>29)</sup>은 칼라모양은 변하지 않으면서 넥밴드 부분만 최대한 높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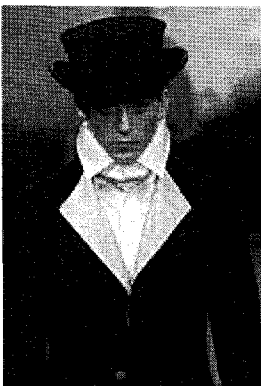
셔츠의 프론트에는 화려한 장식들이 더해졌는데 프릴, 핀턱, 파이핑 등 디테일이 강한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패치나 자수를 이용하여 기존의 비즈니스 셔츠에서 짧은 감각의 셔츠로 디자인 되었다.<sup>30)</sup> 또한 비즈, 스팅글 등의 트리밍을 비롯해 다양한 장식적 요소가 부가되어 셔츠의 분위기를 새롭게 해

주었다. 특히 <그림 7><sup>31)</sup>에서 보이듯이 셔츠의 버튼을 2~3개 풀어 줌으로써 부드러운 남성성과 세슈얼한 남성상의 강점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패션 스타일로서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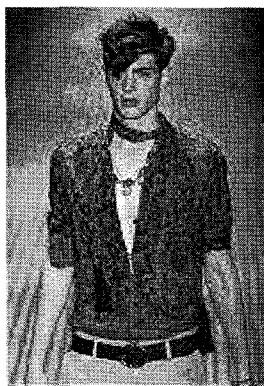
이러한 셔츠 디자인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여밈의 모양과 방법에도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는데 가장 큰 변화는 비대칭적인 구조이며 여밈의 도구로 단추가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8><sup>32)</sup>은 앞여밈에 단추 대신 끈을 이용하여 묶어줌으로서 여미었다. 또한 소매모양과 소매길이에 따른 변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셔츠의 길이는 극도로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형태를 보였고 길이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은 밑단의 형태를 다른 아이템에서 가져오기도 하였다.

최근 남성의 딱딱한 어깨는 한결 부드러워지고 화려한 장식들이 더해지고 있어 어깨부분의 장식적인 요소가 부각되고 있다. <그림 9><sup>33)</sup>는 셔츠의 어깨부분에 섬세한 문양이 수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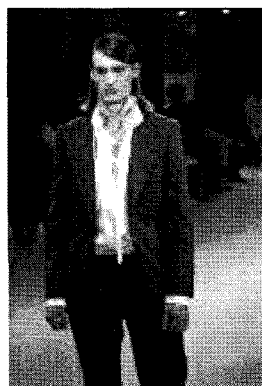
<표 1>은 시대흐름에 따른 남성셔츠 디자인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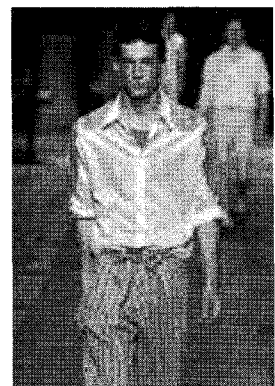
<그림 6> John Galiano,  
Paris, 2005 F/W  
www.samsungdesign.net



<그림 7> Gucci, Milano,  
2007 S/S  
www.samsungdesign.net



<그림 8> Masaki  
Matsushima, Paris,  
2006 S/S  
www.samsungdesign.net



<그림 9> Dries Van Noten,  
Paris, 2006 S/S  
www.samsungdesign.net

〈표 1〉 시대흐름에 따른 남성셔츠 디자인의 특징

시대적 구분	남성 셔츠 디자인의 특징
20세기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셔츠의 기원인 린넨 슈미즈 형태의 소멸</li> <li>• 끈으로 개더를 잡음으로써 생긴 셔링, 러플 → 장식적인 러프의 극대화</li> <li>• 크라바트 탄생</li> <li>• 탈부착 칼라, 다양한 종류와 모양의 칼라형태 등장</li> <li>• 신분표시의 상징 수단 → 화이트셔츠</li> <li>• 속옷에서 겉옷으로서의 변화 시작</li> </ul>
20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표시로서의 기능약화 → 화이트셔츠 감소</li> <li>• 코트형의 데이셔츠 일반화</li> <li>• 커프스의 커프스링크가 단추로 변화</li> <li>• 스트라이프, 유색, 프린트 무늬 셔츠 유행</li> <li>•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는 양상으로 발전</li> </ul>
21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역할 변화와 함께 남성의 다양한 이미지 변화 → 다양한 디자인의 셔츠 등장</li> <li>• 칼라는 중첩 또는 탈부착형과 극도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다른 아이템과 결합시킨 디자인이 등장</li> <li>• 프론트는 프릴, 핀턱, 자수, 비즈, 스팅글 등 화려한 장식들이 더해짐.</li> <li>• 여밈의 모양과 방법은 비대칭적인 구조로 단추가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li> <li>• 소매모양과 길이에 따른 변화도 두드러지며 어깨부분 또한 장식적으로 변화</li> </ul>

### Ⅲ. 하이패션에 나타난 남성셔츠 디자인 이미지

본 장에서는 남성셔츠 디자인의 복식사적 고찰을 토대로, 2005년 S/S 컬렉션 이후부터 2010년 F/W 컬렉션까지 나타난 남성셔츠 디자인 이미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남성복컬렉션 중 단품으로서 셔츠가 나타난 사진을 통해 칼라, 프론트, 앞여밈, 소매, 셔츠길이 등 셔츠를 구성하는 조형요소들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하이패션에 나타난 남성셔츠 디자인 이미지를 머스쿨린 로맨틱(Masculine Romantic), 프래티컬 퓨전(Practical Fusion), 아방가르드 시크(Avant-garde Chic) 이미지로 분류하여 고찰·분석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사진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연구의 대상이 된 사진은 총 69장이었으며 그 중 디자인 특성의 요소가 잘 드러난 자료를 각각 선별하였다.

#### 1. 머스쿨린 로맨틱(Masculine Romantic) 이미지

머스쿨린 로맨틱(Masculine Romantic)은 ‘남자의, 남성적인’이라는 뜻의 머스쿨린과 ‘낭만적인’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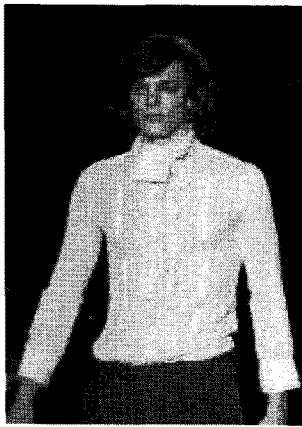
뜻의 로맨틱을 합성한 용어이다. 따라서 머스쿨린 로맨틱 이미지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사용하여 양성적으로 표현되며 여성적인 요소가 가미되어도 남성스러움은 잃지 않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남성미를 더욱 강조한 이미지로 고찰하였다.

20세기 후반 이후 남성들은 패션에서 수동적, 안정적, 형식적인 면을 깨고 보다 과감하고 자유분방하며 능동적인 자기표현과 개성의 표출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21세기에는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패션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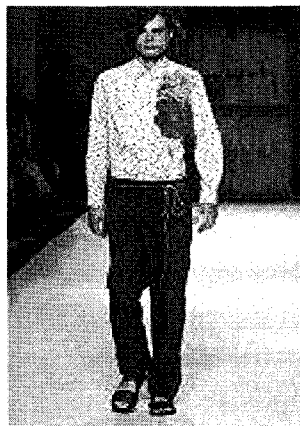
더욱이 21세기에 들어서 남성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면서 남성의 성역할 변화들은 유익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에 21세기 남성패션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성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강하고 거친 이미지의 남성보다 부드럽고 섬세한 남성상이 선호되면서 남성들도 아름다워지고 싶은 내적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34)</sup>

이러한 경향은 남성 셔츠의 디자인에 있어 로맨틱한 이미지의 프릴, 비즈, 핀턱 등의 장식으로 아름다운 남성의 이미지를 창출하였고 실크나 저지, 비치는 소재 등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남성미를 부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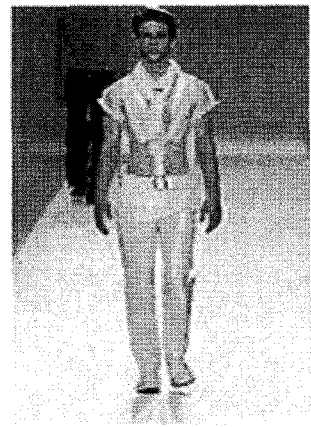
〈그림 10〉<sup>35)</sup> 2006 F/W 구찌(Gucci) 작품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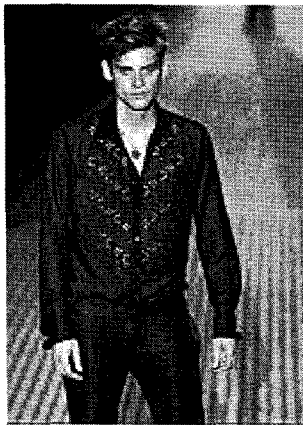
〈그림 10〉 Gucci, Milano,  
2006 F/W  
www.samsungdesign.net



〈그림 11〉 Antonio Marras,  
Milano, 2007 S/S  
www.samsungdesign.net



〈그림 12〉 Costume Natinal,  
Milano, 2007 S/S  
www.samsungdesign.net



〈그림 13〉 Gucci, Milano, 2008  
S/S  
www.samsungdesign.net



〈그림 14〉 손성근 2009 S/S  
www.samsungdesign.net

아이보리 컬러의 속이 비치는 얇은 소재로, 프론트에는 프릴로 장식이 되어있으며 커프스와 소매, 넥라인에 레이스 장식이 섬세하게 되어 있어 여성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몸의 윤곽이 드러나는 피트된 실루엣을 통해 남성미가 한층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sup>36)</sup> 2007 S/S 안토니오 마라스(Antonio Marras) 작품에서는 옅은 라임 컬러에 작은 도트문양이 불규칙하게 흩뿌려져 있는 남성의 전형적인 셔츠의 형태이다. 그러나 가슴부분에 그린과 레드컬러

의 큰 코르사주(corsage)로 장식을 하여 남성의 이미지를 더욱 로맨틱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 12〉<sup>37)</sup> 2007 S/S 커스툼 내셔널(Costume National) 작품의 경우, 짧은 소매의 여성스러운 블라우스형태이다. 속이 훤히 보이는 망사 소재와 함께 단추를 여러 개 풀어헤쳐 보임으로써 근육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여성적인 요소가 가미되어도 남성스러움을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드러운 남성미를 느낄 수 있다.



〈그림 13〉<sup>38)</sup> 2008 S/S 구찌 작품에서는 블랙컬러의 비치는 시스루 소재와 함께 프론트에는 브이 형태로 아일렛 문양을 내어 신체가 은은하게 드러남으로써 부드럽고 섬세한 남성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4〉<sup>39)</sup> 2009 S/S 손성근 작품에서는 프론트에 전체적으로 프릴이 달려있으며 허리 라인이 들어가 로맨틱한 남성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레이스로 된 러프칼라를 목에 둘러 한층 아름다운 남성의 이미지가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 2. 프래티컬 퓨전(Practical Fusion) 이미지

프래티컬 퓨전(Practical Fusion)은 '실제의, 실용적인'이라는 뜻의 프래티컬과 '융합, 통합'이라는 뜻의 퓨전을 합성한 용어이다. 따라서 프래티컬 퓨전 이미지는 하나의 셔츠에 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들이 접목되어 실용성을 가미함으로써 신선함을 강조한 이미지로 고찰하였다.

21세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쳐 보다 심화된 다원화의 시대로 되어감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중성으로의 전이를 일컫는 탈경계화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것들이 뒤섞여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융화, 즉 퓨전현상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특히 현대인들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소비자의 의식구조가 감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해감으로써 개개인의 선호도 즉, 의식자체가 자기만족을 지향하는 개성 중심으로 사고가 전환되었다.<sup>40)</sup>

또한 현대인들은 T.P.O가 사라진 현재 합목적성과 실용성이 기능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기호를 충족시킴으로써 생활전반에 걸쳐 남성패션에서도 프래티컬 퓨전 이미지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셔츠 디자인의 특징은 하나의 셔츠에 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들이 접목되어 보여졌으며 아이템간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여 셔츠의 기본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디자인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림 15〉<sup>41)</sup> 2005 F/W 크리스반 아셰(Kris Van Assche) 작품에서는 화이트 컬러의 전형적인 드레스 셔츠로, 넥타이를 자유롭게 풀어헤친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제 넥타이를 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셔츠에

프린트되어 있어 마치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는 듯 실용성이 가미되어 표현되고 있다.

〈그림 16〉<sup>42)</sup> 2009 S/S 지방시(Givenchy) 작품에서는 비닐소재의 연그레이 컬러의 셔츠로 커프스와 암홀, 칼라, 플레킷을 화이트컬러로 포인트를 주었다. 특히 독특한 비닐느낌의 소재와 여밈 부분을 감춤으로써 셔츠지만 캐주얼한 점퍼처럼 연출하였는데 이는 셔츠와 아우터 웨어(outer wear)를 접목 하는 등 아이템간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여 한층 새롭게 표현되고 있다.

〈그림 17〉<sup>43)</sup> 2009 F/W 엘빈 벨리(Alvin Valley) 작품의 경우, 속이 비치는 블랙컬러의 반소매 셔츠는 얇은 인조가죽느낌의 소재로 넥라인과 스카프를 접목하여 마치 스카프를 두른 듯 연출함으로써 실용성뿐만 아니라 신선함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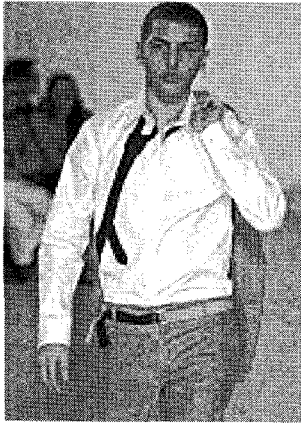
〈그림 18〉<sup>44)</sup> 2009 S/S 장광호 작품에서는 연한블루컬러의 넉넉한 실루엣으로 어깨견장이 달린 버튼다운 셔츠이다. 그러나 일반셔츠보다는 길이가 길고 꺼내어 입음으로써 셔츠지만 아우터 웨어의 형태를 부각시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9〉<sup>45)</sup> 2010 S/S 알렉시스 마빌(Alexis Mabille) 작품의 경우 민소매의 셔츠 위에 런닝탑(Running Top)을 레이어드 한 듯 연출하였다. 이는 부분과 부분을 결합한 형태로 기존 셔츠의 고정된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 남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디자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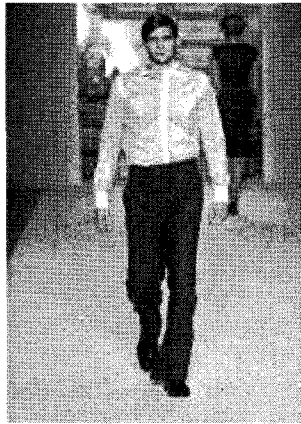
## 3. 아방가르드 시크(Avantgarde Chic) 이미지

아방가르드(Avantgarde)는 기성의 개념을 부정하고 전통을 배제한다거나 파괴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실험적 성격이 짙은 전위예술로서 표현파, 다다, 입체파, 추상파, 초현실주의파들이 여기에 속한다.<sup>46)</sup> 시크(Chic)는 세련된, 매력있는, 멋진, 근사한 이라는 뜻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 첫 눈에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 옷차림이 바로 시크패션이라 할 수 있다.<sup>47)</sup>

따라서 아방가르드 시크(Avantgarde Chic) 이미지는 아방가르드와 시크를 합성한 용어로, 일반적인 셔츠의 형태에서 실루엣을 보다 과장되게 표현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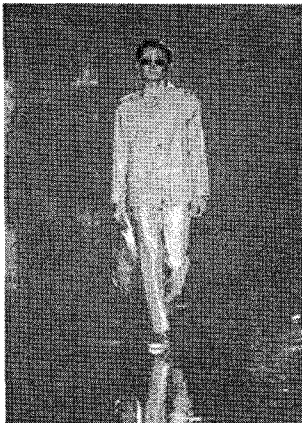
〈그림 15〉 Kris Van Assche, Paris, 2005 F/W  
www.samsungdesig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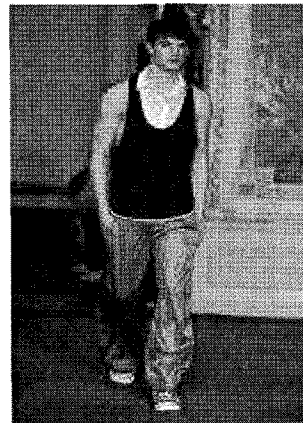
〈그림 16〉 Alvin Valley, New York, 2009 F/W  
www.samsungdesign.net



〈그림 17〉 Givenchy, Paris, 2009 S/S  
www.samsungdesign.net



〈그림 18〉 장광호 2009 S/S  
www.samsungdesign.net



〈그림 19〉 Alexis Mabille, Paris, 2010 S/S  
www.samsungdesign.net

써 대중성을 무시한 독창적이고 기묘한 디자인을 연출하여 시크함을 강조한 이미지로 고찰하였다.

21세기 패션에서는 다양한 소비자의 개성표현을 위한 전위적인 방법으로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야방가르드 패션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비주류문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최근의 문화적 상황에서 야방가르드 패션이 제시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충격이 대중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sup>4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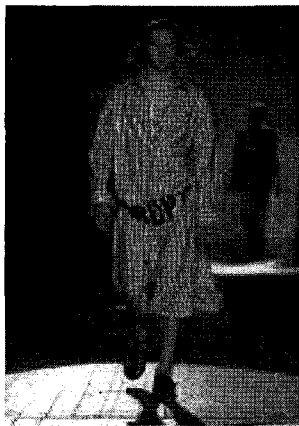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은 남성 셔츠 디자인에 있어서 소매모

양, 커프스, 셔츠 길이 등을 과장되게 변형하여 보다 특별하고 독특함을 부각하는 디자인들이 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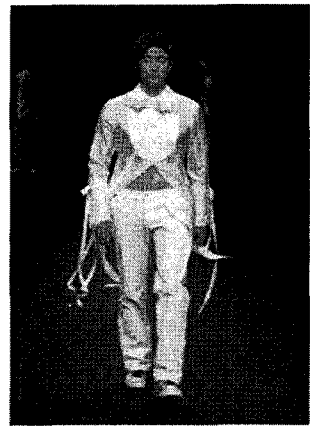
〈그림 20〉<sup>49)</sup> 2006 S/S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작품에서는 아이보리컬러의 하늘거리는 쉬폰 소재의 셔츠이다. 소매부분을 길게 슬래쉬를 넣어 움직임에 따라 풍성하게 보이며 벌어진 소매사이로 남성의 팔이 드러나도록 하여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그림 20> Alexander McQueen,  
Milano, 2006 S/S  
www.samsungdesig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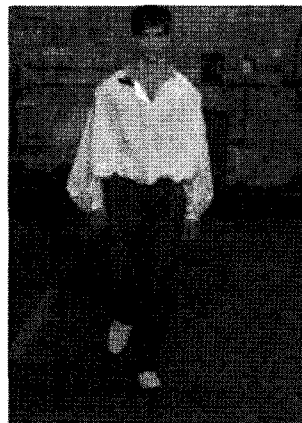
<그림 21> Vivienne Westwood,  
Milano, 2006 S/S  
www.samsungdesign.net



<그림 22> 박종철 2008 S/S  
www.samsungdesign.net



<그림 23> Junn. J, Paris,  
2008 S/S  
www.samsungdesign.net



<그림 24> Kris Van Assche,  
Paris, 2008 S/S  
www.samsungdesign.net

<그림 21><sup>50)</sup> 2006 S/S 비비안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작품의 경우, 기존의 스트라이프 셔츠를 최대한 길게 늘어뜨려 마치 원피스를 입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셔츠의 길이는 바지저퍼를 덮는 정도가 적당하지만 길이를 과장되게 연출하여 색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sup>51)</sup> 2008 S/S 박종철 작품에서는 시스루 소재의 화이트 컬러 드레스 셔츠로, 커다란 보우타이(bow tie)를 매었으며 가슴 아래로 단추를 여미지

않고 풀어헤친 모습이다. 소매와 앞 목 중심에서 여러 개의 끈을 길게 늘어뜨리고 셔츠의 앞자락을 끈의 형태처럼 날카롭게 길게 늘어뜨려 보다 특별함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그림 23><sup>52)</sup> 2008 S/S 준 제이(Junn. J) 작품에서는 화이트컬러의 슬립한 셔츠로, 셔츠 위에 블레로를 입은 것처럼 어깨부분에 스냅으로 연결하여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커프스를 크고 길게 늘어뜨려 더욱 새롭고 획기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표 2〉 하이패션에 나타난 남성셔츠 디자인 이미지

이미지	정의	디자인 특징
머스쿨린 로맨틱 이미지 (Masculine Romantic)	· 남성성을 잃지 않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남성미를 강조한 이미지	· 로맨틱한 이미지의 프릴, 비즈, 핀턱 등의 장식과 실크나 저지, 비치는 소재 등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남성미 부각
프래티컬 퓨전 이미지 (Practical Fusion)	· 아이템들이 접목되어 실용성을 가미함으로써 신선함을 강조한 이미지	· 하나의 셔츠에 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들이 접목되거나 아이템간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여 새로운 형태를 보여줌.
아방가르드 시크 이미지 (Avantgarde Chic)	· 일반적인 셔츠의 형태에서 실루엣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시크함을 강조한 이미지	· 소매모양, 커프스, 셔츠 길이 등을 과장되게 변형하여 보다 특별하고 독특함을 부각하는 디자인들이 주로 나타남.

〈그림 24〉<sup>53)</sup> 2008 S/S 크리스 반 아셰(Kris Van Assche) 작품에서는 칼라가 없는 셔츠의 형태로, 소매와 품을 풍성하게 디자인하여 블라우스의 느낌을 주고 있다. 특히 소매를 벌린 형태로 하여 풍요로운 남성미와 함께 세련되게 연출하고 있다.

〈표 2〉는 하이패션에 나타난 남성셔츠디자인 이미지를 정리한 것이다.

#### IV. 결론

최근 감각적인 시대에 부응하여 남성들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풍부한 감성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능동적인 자기표현과 개성의 표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복 시장에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중점을 두었던 남성들의 의식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로 전환되면서 '스타일링의 시대'라는 남성패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기업에서 시행한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에 대한 방침은 단순히 착용법만 변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태도를 변하게 했으며 남성의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이패션을 중심으로 남성복 트렌드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남성셔츠의 디자인특성을 살펴보고 이미지를 고찰함으로써 조형적 측면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림으로써 미래패션의 새롭게 창출되는 디자인 및 조형성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함에 그 의의를

두었다.

하이패션에 나타난 남성셔츠 디자인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머스쿨린 로맨틱 이미지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사용하여 양성적으로 표현되며 여성적인 요소가 가미되어도 남성스러움은 잃지 않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남성미를 더욱 강조한 이미지로 고찰하였다. 로맨틱한 이미지의 프릴, 비즈, 핀턱 등의 장식으로 아름다운 남성의 이미지를 창출하였고 실크나 저지, 비치는 소재 등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남성미를 부각시켰다.

둘째, 프래티컬 퓨전 이미지는 하나의 셔츠에 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들이 접목되어 실용성을 가미함으로써 신선함을 강조한 이미지로 고찰하였다. 하나의 셔츠에 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들이 접목되어 보여졌으며 아이템간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여 셔츠의 기본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디자인들이 많이 나타났다.

셋째, 아방가르드 시크이미지는 일반적인 셔츠의 형태에서 실루엣을 보다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대중성을 무시한 독창적이고 기묘한 디자인을 연출하여 시크함을 강조한 이미지로 고찰하였다. 소매모양, 커프스, 셔츠 길이 등을 과장되게 변형하여 보다 특별하고 독특함을 부각하는 디자인들이 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1세기는 새로운 감각과 창의성이 요구되며 특히 독특한 개성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로써 남성패션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걸옷의 개념으로서의 필수 아이템인 셔츠는 비즈니스 캐주얼이 성장하

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남성 셔츠의 디자인 특성을 고찰하고 21세기 트렌드와 더불어 셔츠 디자인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남성패션 디자인에 있어서의 조형성 및 디자인의 예측과 접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 상·하를 따로따로 자유롭게 조화시켜서 입을 수 있는 형식을 일컫는 복식. *네이버 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0. 6. 24, 자료출처 <http://100.naver.com/100>
- 2) 삼성디자인넷 (2009. 5. 12). Business Casual 4W1H. 자료검색일 2010. 3. 8,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3) 이정호 (2007). *현대 남성셔츠에 나타난 성 개념과 미적가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 4) 권지은 (2003).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나는 메트로섹슈얼 현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조은주 (2005). *대중문화에 나타난 metrosexual과 패션 이미지 특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안보은 (2005). *패션광고에 나타난 메트로섹슈얼에 관한 연구: G. Q. Korea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지연 (2004).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현대 남성패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이현지 (2007). *국내 남성패션의 여성화경향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김태희 (2007).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로맨티시즘 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장성은 (2007). *대량맞춤 생산체계를 위한 체형별 남성 드레스셔츠 패턴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이승현 (2008). *남성복 캐주얼브랜드 무너셔츠에 대한 패션 감성과 소비감성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황삼숙 (1999). *남성복 드레스 셔츠의 변천과정과 유행주기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4.
- 13) 이상래 (1997).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걸옷화 현상*. 복식, 35, p. 328.
- 14) 황삼숙. *앞의 책*, p. 29.
- 15) 이정호. *앞의 책*, p. 8.
- 16) 셔츠. *네이트 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0. 6. 16, 자료출처 <http://100.naver.com/100>
- 17) Ruby, jennifer (1996). *Underwear*. Batsford, p. 60.
- 18) 황삼숙. *앞의 책*, pp. 10-11.
- 19)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6. 28,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20)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6. 28,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21)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6. 28,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22)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이종남 외 역 (1988). *복식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까치, p. 382.
- 23) 이정호. *앞의 책*, p. 57.
- 24) 김주애 (2001). 20세기 후기에 나타난 서양 남성 속옷의 특성. 복식, 51(7), p. 56.
- 25) Mendes, Valerie & Amy de la Haye (2003). *20세기 패션*. 김정은 역. 서울: 시공사, p. 39.
- 26) 김주애. *앞의 책*, p. 58.
- 27) *위의 책*, p. 114.
- 28) 네이트. 자료검색일 2010. 6. 29, 자료출처 <http://m.search.nate.com>
- 29)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6. 29,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30) 김은옥 (2006. 6. 20). 셔츠시장에도 화이트 열풍. *어패럴뉴스*. 자료검색일 2010. 6. 30, 자료출처 <http://www.appnews.co.kr>
- 31)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6. 29,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32)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6. 29,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33)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6. 28,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34) 김현아 (2009). *21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성이미지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 35)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6. 29,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36)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6. 28,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37)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7. 1,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38)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7. 1,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39) 서울패션위크. 자료검색일 2010. 10. 20 자료출처 [www.seoulfashionweek.org](http://www.seoulfashionweek.org)
- 40) 이유미 (2001).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퓨전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 41)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6. 28,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42)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6. 28,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43)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6. 29,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44) 서울패션위크. 자료검색일 2010. 10. 20 자료출처 [www.seoulfashionweek.org](http://www.seoulfashionweek.org)
- 45)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6. 29,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46) 김종복 (2002). *패션키워드*. 도서출판 시대, p. 106.
- 47) *위의 책*, p. 24.
- 48) 팽문영 (2010). *영국과 일본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

- 49)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7. 1,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50)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7. 1,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51) 서울패션위크. 자료검색일 2010. 10. 20 자료출처 [www.seoulfashionweek.org](http://www.seoulfashionweek.org)
- 52)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6. 28,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 53)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6. 28,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